



공동체 소식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3월 기도지향

- 정한조 / 정지현 막달레나 가정
- 박상준 안젤로 / 김화년 요안나 가정

☞ 4월 공동체 기도지향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한 사제들>을 위해서입니다. 미사 전,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사순시기 운동

- 마니또 뽑기(기도와 희생 봉헌)
- 구역미사 및 판공성사
- 신심서적 '차쿠의 아침' 읽고 감상문 쓰기 (4/5 마감)

파스카 성삼일 전례

- 성유 축성 미사 : 3/31(화) 오전 11시, 교구청 채플
- 주님 만찬 미사 : 4/2(목) 오후 8시, 밤샘성체조배(회관)
- 주님 수난 예식(예식 전 십자가의 길) : 4/3(금) 오후 8시
- 부활 대축일 밤미사 : 4/4(토) 오후 8:30

☞ 성목요일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 성금요일은 '예루살렘 성지 복구 헌금'이 있습니다.

☞ 3/31(화) 교구사제단 공동 집전하는 '성유축성미사'로 본당 저녁미사는 없습니다

밤샘 성체 조배

구분	시간	배정
1	09:00 - 10:00	성가대
2	10:00 - 11:00	3구역
3	11:00 - 12:00	2구역
4	12:00 - 01:00	1구역
5	01:00 - 02:00	평협

기타

- 전례부 : 부활대축일 맞이 꽃봉헌 받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세족례(4/2) 대상자 : 김호원, 김정원, 양경직, 한봉경, 이우석, 감영진, 홍순익, 김태중, 문석찬, 정석원, 정준구, 고영방 이상 12명.
- 마니또 선물에 대하여 알립니다. 선물은 10불 내외로 정성껏 준비하시고, 카드와 함께 받는 분의 성함을 정확히 써서 4/5(일) 까지 전례부에 주시기 바랍니다.
- 캔사스 대교구에서 나누어 드린 Rice Bowl을 회수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액을 체크로 봉헌해 주시면 송금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4/12(일) 중심미사 후,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21	220	180/170	124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수한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호섭 요셉 문석찬 요셉
차주	부활 대축일 전체 복사	

☞ 파스카 성삼일 복사차레는 전례부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주	다 함께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3/22	75명	375불	450불
류기범, 주영길(총 2세대)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5년 3월 29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신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실 곳을 아십니다.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은 머지않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림묵상

주님의 수난

군중들의 환호 속에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는 모습 뒤에는 예수님의 수난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덮쳐옵니다. 군중과 제자들의 인간적인 기대가 물거품이 된 순간, 그들로부터 받은 배신과 조롱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군중 속에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제 십자가에 대신 못박히신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이사 50,4-7 < 나는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

화 답 송 :



어 찌 하 여 - 저 를 버 리 시 나 이 까 -

- 울부짖고 빌것만 멀리 계시옵고  
진종일 외쳐봐도 들은채 없으시니. ◎
- 울부짖고 빌것만 멀리 계시옵고  
밤새껏 불러봐도 알은채 없으시니. ◎

제 2 독서 : 필리피서 2,6-11

<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수 난 복 음 : 마르 14,1-15,47<또는 15,1-39>



# “세월호 1년, 아픔의 현장 지키며 치유와 위로를”



진도 팽목항. 이곳엔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안식과 그 유가족, 특히 아직 찾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 9명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기도처인 천막 성당이 있다. 세월호 희생자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시신 안치소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천막 성당은 죽은 자녀와 산 부모가 마지막으로 재회했던 장소이다. 이 성당에선 매일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과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비는 주님의 희생제사가 봉헌되고 있다. 이 치유와 위로의 팽목항 현장 한가운데에 최민석(광주대교구 사회복지 담당) 신부가 홀로 사목하고 있다.

3월 18일 낮. 진도 팽목항 천막 성당에 들어섰을 때, 최 신부는 한쪽 구석에서 전기장판 한 장으로 비바람에 언 몸을 막 녹이고 있었다. 지난 1월부터 이곳에 터한 그는 몇 달 새 무척 수척해 있었다.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하기만 하다는 그는 유족들이 자신으로 인해 혹 또 다른 상처를 입을까 매사 조심한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신경 쓰다 보니, 웃음기 없는 얼굴로 생활하기 다반사다.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에 비할 수 없지만, 최 신부는 팽목항에 내려오기 전부터 이들과 하나였다.

최 신부가 팽목항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보듬고,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최 신부는 팽목항 인근 진도성당 사제관에서 잠만 잔 뒤 매일 오전 9시 30분 이곳으로 와 분향소에 상주하는 유가족들을 만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종교가 없는 이들도 사제가 매일 찾아오는 것에 힘을 얻는다. 최 신부는 참사 이후 희망을 잃어가는 유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는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고 당부하신 것처럼, 세월호 유족은 곤경에 처한 우리 시대의 어려운 이웃이 아닐 수 없다.

“한 유가족은 ‘내가 왜 죽었는지 진실을 밝혀 달라’는 죽은 자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신이 전부 수습될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 뒤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 가득했던 부스들이 쓸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럼에도 천주교는 굳건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야전병원’이 되어 한다”며 세상 사람과의 참된 형제애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당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친 이날 오후 4시 천막 성당에선 어김없이 미사가 봉헌됐다. 광주대교구 본당들이 돌아가며 평일 미사를 드리는데, 이날은 광주 영주동본당 주임 강요섭 신부와 신자 10여 명이 참례했다. 미사에 앞서 바친 ‘세월호 십자가의 길’ 기도 때에는 모두가 눈물을 쏟았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을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겹쳐졌다.

천막 성당을 세 번째로 찾았다는 최정애(안젤라, 58)씨는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은 다 같다”며 “세월호가 점점 잊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흐느꼈다. 팽목항 분향소에서 만난 세월호 유가족 유명민(47)씨는 “신자는 아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소식에 크게 감동했다”며 “팽목항을 떠나지 않고 위로해주는 천주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대교구는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 부스를 설치하고 매일 미사를 봉헌해왔다. 올 1월에는 ‘세월호 1주기 준비위원회’(위원장 옥현진 주교)를 발족, 사순 시기 영성 운동과 사순 특강도 펼치고 있다. 4월 16일에는 팽목항에서 ‘세월호 1주기 추모 미사’를 봉헌할 계획이다.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월호는 우리나라의 십자가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최민석 신부는 “고통 속에 사는 우리 이웃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 여기 와 있다”며 “신앙인이라면 이들의 목소리 연대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평화신문> 3/29자 발췌 -



## 제 3 편 자기 성화

### 제 2 장 양심을 바르게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 숨겨 두어야 할 것들을 버렸으며, 간교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어 하느님 면전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2코린 4,1-2).

#### 【주석】

**사람의 양심 앞에** : 로마 9,1에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로마 9,1)라고 말한다.

#### 【설명】

맑고 깨끗하고 잔잔한 호수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비쳐준다. 거울을 잘 닦아야 제대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양심의 거울을 잘 닦아야 그릇된 길을 벗어나 올바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 거울이 일그러지거나 더럽혀지면,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없고 행할 수 없다.

#### 【교회의 가르침】

▶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사목현장, 16항).

▶ 인간은 그 이성으로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모든 사람은 양심 안에 울려 퍼지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이행하는 이 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증언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06항).

▶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하여야 할 법이다.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도록 부른다. 필요한 곳에서는 마음의 귀에 대고, ‘이것을 하여라.’, ‘저것을 삼가라.’ 하고 타이른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76항).

▶ 잘 형성된 양심은 바르며 진실하다. 양심은 창조주의 지혜가 바라는 참된 선에 부합하도록 이성 따라 판단한다. 누구나 자신의 양심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98항).

▶ 목상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럽다는 것도 모르고 외출하지요. 하지만 목상하고, 생각을 영혼의 거울이신 하느님께 향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알아내려 하고, 고치려 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양심을 가지런히 합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3 -

